

15

제3회 중·동유럽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에르치예스 대학교	성명	한글	괴수 엘리프	생년월일	1994 년 02월 02일
	영문	Erçyes University		영문	ELIF GOKSH	학년	4

100

200

300

400

500

나 는 의 힘
 나 는 이 라는 것 이 사 람 과 사 람 사 이 에
 서 만 있 는 것 이 아 니 다 . 사 람 과 자 연
 사 이 에 서 도 버 러 질 수 있 는 것 이 다 . 사
 람 사 이 에 서 버 러 지 는 나 는 을 생 각 하 면
 무 서 워 하 는 사 람 들 도 많 다 . 나 는 면 나 는
 만 큼 거 뒤 뒤 지 를 모 르 고 나 는 만 큼
 알 는 다 고 생 각 하 기 때 문 이 다 . 그 생 각 이
 틀 리 다 고 분 다 . 그 런 사 람 들 이 나 는 는
 것 이 사 물 이 면 그 순 간 에 나 는 만 큼 을
 알 았 다 고 생 각 할 수 있 지 만 오 히 러 나
 는 없 던 사 람 에 게 로 더 큰 도 움 이 나 사
 물 을 받 게 될 수 도 있 다 . 세 상 은 예 상
 할 수 있 는 것 이 아 니 다 . 사 람 과 자 연
 사 이 에 서 나 는 은 조 금 더 다 르 다 . 자 연
 은 말 을 할 수 가 없 지 만 계 절 로 따 뜻
 함 은 줄 수 있 고 가 을 이 되 어 눈 물 로
 너 의 슬 픔 을 나 는 수 있 다 . 자 연 의 눈
 물 은 비 다 . 자 연 의 나 는 은 사 물 이 아 닌
 감 정 이 다 .
 나 에 게 나 는 은 많 은 방 법 을 가 지 고
 있 는 것 이 다 . 교 환 학 생 으 로 한 국 에 갔
 을 때 깨 달 았 던 것 중 에 하나 다 . 가 기

2
 102
 11
 11

제3회 중·동유럽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에르치예스 대학교	성명	한글	곽수 엘디프	생년월일	1994 년 02월 02일
	영문	Erciyes University		영문	ELIF GOKSLI	학년	4

100

200

300

400

500

전 에 나 눈 은 나 에 게 사 람 과 사 람 사 이
 에 서 만 앓 을 수 앓 는 것 이 앓 지 만 가 고
 나 서 그 생 각 이 바 꺾 았 다. 사 람 사 이 에
 서 버 러 지 는 것 도 나 눈 이 앓 지 만 자 연
 과 의 나 눈 을 처 음 으 로 경 험 해 보 았 다. 언
 니 를 아 주 보 고 싶 어 서 우 리 전 남 대 의
 호 수 도 가 서 울 며 마 을 속 에 앓 는 슬 픔
 을 털 어 놓 았 았 는 데 신 기 하 게 도 속 이 시
 원 해 진 것 을 느 껴 았 다. 그 때 는 " 호 수 도
 나 의 감 정 을 나 누 며 나 에 게 희 망 을 건
 달 수 앓 는 힘 을 주 구 나 " 라 고 생 각 을
 했 았 다. 그 후 에 는 언 제 나 슬 픔, 행 복 한
 일 이 생 기 면 가 서 호 수 에 게 이 야 기 했
 다. 호 수 도 반 갑 게 나 를 보 고 앓 는 것
 같 았 다. 물 론 이 런 나 눈 뿐 만 아 니 라
 사 람 과 의 나 눈 도 여 러 번 경 험 해 왔 다. 그
 중 에 기 억 에 남 은 하 나 는 가 나 인 친 구
 와 했 던 나 눈 이 다. 내 가 그 친 구 의 한
 국 어 발 음 을 많 이 고 쳤 고 그 친 구 도
 나 에 게 고 급 스 러 운 단 어 를 많 이 말 려 주
 았 다. 이 나 눈 덕 분 에 서 로 서 로 의 한
 국 어 를 늘 게 했 고 중 은 추억 들 도 가 지
 며 줄 은 우 정 을 거 두 았 다. 내 가 지 금 까
 지 생 겼 던 내 용 이 바 다 같 이 깊 은 뜻 을
 가 진 나 눈 이 라 는 단 어 의 작 은 한 부 분

기

도

근 제 작

제3회 중·동유럽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에르치예스 대학교	성명	한글	곽수 엘리프	생년월일	1994 년 02월 02일
	영문	Erciyes University		영문	ELF GOKSU	학년	4

100

200

300

400

500

인 것 을 알고 있다 . 나 는 두 명 에서
시 작 되 는 것 이 지 만 사 람 들 이 모 여 단
체 나 나 라 사 이 에 서 도 문 화 적 인 나 는 도
일 어 나 는 것 이 다 . 우 리 가 여 기 까 지 오 는
것 도 지 금 이 대 회 에 참 가 하 고 쓰 는 이
글 까 지 나 는 아 닌 가 ?
위 에 있 는 모 든 이 야 기 도 조 함 하 여
나 는 한 마 리 로 읽 음 이 아 니 라 힘 이
다 . 사 람 이 있 으 면 나 는 있 고 나 는
있 으 면 힘 이 있 는 것 이 다 . 그 래 서 원 래
나 는 , 보 통 사 람 들 이 생 각 하 는 대 로
읽 음 이 아 니 고 벌 음 이 다 . 이 것 을 모 르
는 사 람 이 많 지 만 벌 면 서 느 끼 는 보 람
이 다 . 나 는 사 람 과 사 람 의 중 심 이 다 .